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한해전 8월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현대적인 의료봉사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의료기구공업에서 선도적역할을 하는 본보기공장, 만아들공장으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넓은 건물들을 들어내고 현대적미감이 나게 번듯하게 일신하며 생산환경을 국제적기준에 맞게 꾸리고 최신시설비들을 갖추어주어 제품생산 전 공정을 흐름선화, 자동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인민군대에 공장건설을 맡겨주시였으며 군수공장들에서 설비제작 사업을 맡아하도록 과업을 주시고 당중앙위원회와 해당 부문 일군들을 망라한 지도소조와 건설상무를 조직하여 공장에 파견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반두고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련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수습여객 대상의 신축 및 증설, 개건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으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국산화된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놓고 의료기구시제품들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생산준비를 다그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해에 돌아본 공장이 옹은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공장의 내외부가 의료부문의 본보기공장답게 꾸려졌다고, 건축형식도 좋고 주변환경도 깨끗해졌다고, 공간배치도 잘하였다고, 건축미학적면에서 보나 기술적면에서 보나 나무랄데 없다고, 완전히 때뵈이를 하였다고, 공장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하시며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이 현대적인 수술대, 해산대, 진찰침대, 환자운반밀차, 이비인후과중합치로기, 치과중합치로기를 비롯한 병원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성능이 좋은 각종 의료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첨단공장으로 꾸려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의료기구시제품들을 하나하나 동작시켜보시면서 성능들을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진찰침대와 치과중합치로기에 친히 앉아보시고 해면이 좀 딱딱하고 굳은감이 난다고, 특히 환자들이 치과치료를 받을 때에는 오랜 시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앉아있게 되는것만큼 머리판을 부드럽게 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환자운반밀차인 경우 측면보호틀이 약간 건들거리는데를 비롯하여 정밀도에서 아직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료기구들을 간간히 작동시켜보고 부족점들을 모두 퇴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만드는 의료기구들은 불수강이나 알루미늄을 비롯한 금속재료들을 많이 쓰고 금속부문에 도장하는 방법으로 마감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하던 낡은 방법이라고, 골격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료기구제작에서 프레스화하고 수지제품의 비중을 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의료기구를 많이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생산하여야 한

다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곧 인민들에 대한 관점문제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 모든 의료기구들을 발전된 나라들에서 생산하는 설비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신의료기구자료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우리 병원들의 실정과 환자들의 체질에 맞게 설계를 잘하며 부단히 혁신적으로 갱신하여 품질이 철저히 담보된 성능높고 실용적인 의료기구들을 개발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공장개건현대화공사가 당에서 구상한 대로 진행되고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결함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건축시공을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부 건물들의 외부벽체타일면의 평탄도가 잘 보장되지 않고 이음줄도 맞지 않는다고, 어떤 부분은 미장면도 고르롭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마감공사를 섬세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자들의 기 능이 낮아 오작, 반복시공으로 귀중한 자재를 초과소비하고 시간도 낭비하면서 한것마저 응당한 수준에서 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개건현대화상부에 동원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설계일군들이 제 때에 당중앙에 보고하고 마감공사를 질적으로 할수 있도록 기능공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가만히 앉아 구경이나 하였다고, 어찌서 기능공로력을 추가동원시키는 문제까지 자신께서 현지에 나와 직접 료해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끔 일들을 무책임하게 하고 앉아있는가고 엄하게 질책하시였다.

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 건축물들을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건축물들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있고 특히 이 공장은 의료부문의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당에서 품들어 꾸리고있는 공장인데 일군들이 이런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건설사업을 만성적으로, 실무적으로 대하고있다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자신과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심각히 비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기능이 높은 부대를 시급히 파견하여주겠으니 그들과 함께 시공과정에 나란한 부족점들을 바로잡고 공장을 년말까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장, 구실을 바로하는 공장으로서 훌륭하게 완공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통봉학용품공장 준공식 진행

통봉산지구에 통봉학용품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다.

연건축면적이 7 740㎡에 달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르히 갖춘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연필, 원주필, 크레용, 필갑을 비롯한 갖가지 질 좋은 학용품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하여 공화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더 많이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

통봉학용품공장 준공식이 29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공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통봉학용품공장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가르치심을 받아가고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학용품공장건설을 받기하시고 설계로부터 건설력량에 이르기까지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학용품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주제의 위력은 다름아닌 민족대단결의 위력이다.

주체적통일력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우리 겨레에게는 지난 시기 조국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기초하여 사상과 정견, 신앙과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민족적단합을 도모한 훌륭한 경험과 전통이 있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제도, 리념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자라는것이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고 의의이다. 공화국은 변화되는 정세와

영하는 길도 대단결에 있다.는 력사의 철리를 확충하여 준 로정이였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것만을 절대시하면서 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충돌과 전쟁을 면할수 없다. 정난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 시기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가

과국의 낭떠러지에 놓이고 일족족발의 전쟁위험까지 초래되었던것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고 불신과 대결을 추구하는자들은 은 민족의 저주와 규탄배격을 면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뜻과 마음을 합치면 강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해진다. 이 사분오열되고 이미 이루어놓은 성과물도 잃어버리게 된다. 북과 남이 뭉치고 힘을 합치면 평화도 안아오고 공동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지만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면 재앙밖에 벗어날것이 없다. 은 겨레는 우리 민족의 화

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여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은 같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정신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북과 남, 해외의 은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뛰쳐나섬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황룡주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

환경속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을 명실공히 전민족적으로국위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대결을 세우고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은 민족을 하나의 조국통일력량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다. 민족대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창조되어온 로정은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길도 대단결에 있고 나라와 민족이 통일번

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것만을 절대시하면서 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충돌과 전쟁을 면할수 없다. 정난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 시기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뜻과 마음을 합치면 강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해진다. 이 사분오열되고 이미 이루어놓은 성과물도 잃어버리게 된다. 북과 남이 뭉치고 힘을 합치면 평화도 안아오고 공동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지만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면 재앙밖에 벗어날것이 없다. 은 겨레는 우리 민족의 화

시평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온다

지금 북남관계는 교착국면에 처해있고 정세는 의연 침체하다. 언제 어떤 우발적사건으로도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날지 누구도 알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정세악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듯 불은 불에 키질하는 식의 대결적인 행태가 계속 벌어져 내외의 위구심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의 대조선군사적압박공세에 동조해나서는 남조선군부당국의 무모한 행동이 바로 그러하다.

10월 25일에도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미8군사격장에서 남조선륙군 제5포병려단의 자행포 《K-9》 실탄사격훈련이 진행되었는데 남조선군부는 여기에 전투복까지 입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초청

하여 관람시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였다고 떠들어댔다.

이에 뒤이어 10월 28일부터는 대규모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2주일간에 걸쳐 벌어지면서 전쟁화약내를 더 질게 풍기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해군 7함대사령관과 남조선해군 잠수함사령부 사령관이 《해군연합작전능력향상방안》을 모의하였는가 하면 남조선군 해병대는 다음해부터 해외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을 비롯한 미국주도의 각종 훈련들에 대한 참가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

격을 노린 첨단공격무기도입일기 도 식을출 모르고 더욱 탈아오르고있다.

이미전에 미국의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첨단공격무기들을 도입한 남조선군부당국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과 함께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비행장에서 전투기 《F-16》, 지상공격기 《A-10》, 전자전기 《EA-18G》, 조기경보기 《E-3B》 등 각종 미국산 무장장비들이 전시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군사적대결광기를 부리였다.

보는것처럼 미국의 대조선군사적압박공세에 추종하는 남조선군부당국의 호전적인 행동은 북남사이의 적대관계중식을 확악한 북남

군사분야합의서에도 전면 배치되는것이다.

앞에서는 웃으며 상대와 악수를 나누고 뒤돌아앉아서는 얼굴에 독기를 풍기며 외세와 함께 계속 상대를 해칠 칼만 가는 남조선군부의 망동을 무엇이라고 평가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우리 겨레의 높아가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보장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 못할 범죄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온다고 했다.

구름이 낀 하늘을 더욱 어둡게만 만들어가는 남조선군부당국의 무모한 군사적행태는 내외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안권일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시며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산업시설, 문화시설들을 비롯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다.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이 차례지도록 하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은 끝이 없다.

지금도 삼지연군을 새롭게 개변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개발하며 경성군 중평남새농산물장과 양묘장을 건설하는 등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이 덕을 보게 될 창조물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인민의 소유물, 나라의 재부로 건설되는 창조물들에 오늘과 래일의 시대상이 비기고 인민의 존엄의 높이, 문명수준이 반영되며 주제성과 민족성이 담긴다.

건축물마다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훌륭한 창조물로 건설하도록 마음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얼마전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현지에서 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을 비롯하여 치료 및 료양구역들과 다기능체육문화지구들을 돌아보시였다.

지대적특성과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되고 특히 건축군이 조화롭게 형성된 관광지구를 돌아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건축형식과 내용이 새롭고 독특할뿐아니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개발한것처럼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기지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이 나라의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 대에 해놓으면 후대들이 그 덕을 보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만족을 모르고서도 천연자원 하나라도 인민의 복리후생에 유익한것이라면 다 개발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도록 하시려

는 응심깊은 사랑이 어려있는 말씀이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며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손색없이 꾸려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나날이 높아지는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더 훌륭한것을 더 많이 창조하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로고는 명승지개발에도 뜨겁게 미치고있다.

얼마전 그이께서는 명산중의 명산으로 알려진 금강산을 현대적인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훌륭히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금강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금강산지구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우리 조국강토에는 뛰어난 명승지가 많지만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있는 금강산은 명승의 집합체로 되고있다고 하시며 나라의 자연경치를 인민들이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수 있게 금강산지구에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를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건축은 나라와 민족의 문명정도, 해당 사회의 발전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고하신 그이께서는 건물들을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킨 우리 나라 건축형식의 전형성을 띠면서 발전된 형태로 건설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명산을 보러 와서 조선의 건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지구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시령스키장이 하나로 련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금강산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 있는 명승지들을 국내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음껏 즐길수 있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훌륭히 꾸리려는것은 공화국의 립장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창조와 전변의 력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인민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지고있는것이다.

모든 평가의 기준

일정한 류형에 속하는 대상들 가운데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대상을 가리켜 전형이라고 할수 있다.

북한의 삼지연군이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변모되고있다.

교양구획, 군급기관구획, 살림집구획, 지방공업구획, 상업봉사구획, 체육문화구획, 교육보건의구획, 관광구획으로 명백히 구분되고 모든 구획이 백두산아래 첫 동네의 자연리서적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되는 삼지연군 읍지구는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비 반복적이면서 도 독특하게 설계되고 다양하고 특색있게 배치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 건축학적으로 맞게 예술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조형화와 다양성이 풍부히 보장된 소총, 다층건물들, 세련되어

가는 립립화... 완공단계에 이른 삼지연군 읍의 모습은 너무 황홀하여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삼지연군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께서는 당에서 구상하던대로 우리 민족제일주의건축리념과 주제적건축미학사상,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지방산간도시의 전형이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곳 장군님, 교향군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들이 좋아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고 하시였다.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지방산간도시의 전형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품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레넨에 없는 폭염과 열풍속에서도 찾으시고 찬늘을 맞으시면서 찾으신 삼지연군건설에 로고를 바치신 경에하는 원수님

이시다.

그로록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며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를 건설하도록하시고 이곳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하시니 그이께서 내세우시는 전형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이다.

언제나 인민들의 요구를 평가기준으로 내세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아주시며 인민들은 엄격한 검열관, 심사관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급급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을 보시며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라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시던 그이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

무슨 일을 구상하시여도,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부터 헤아리시고 인민들의 평가를 모든지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은 인민사랑의 화신이다.

본사기자 리 설

본사기자 고 성호



려명거리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은 뜨거운 민족애와 고결한 의리를 지니고계신다.

그이의 숭고한 덕망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을 바친 유명무명의 애국렬사들이 오늘도 민족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몇해전에 있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총결기간 나라의 통성변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 바친 애국렬사들을 추역하시며 그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가 있어 우리 령명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조국의 오늘

그때부터 임록재선생은 운명의 새 출발, 참된 과학탐구의 길을 걷게 되였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당시) 초대약용식물학강좌장, 약학연구소 연구사활동을 하면서 후대교육과 식물학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뿐아니라 후에는 평양의 학대학에서 의학연구생활을 하였다.

1959년부터 평양식물원(당시) 부원장으로 일하였고 1963년부터는 중앙식물원 원

연구사업을 그만두고 식물원 원장직도 내놓으려 한다는것을 아시고 그에서는 안된다 하고, 심심을 잃지 않고 병치료를 하면 능히 극복할수 있다고 용기와 힘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은총과 보살핌속에 그는 식물의 새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식물관련도서들을 집필발행하는데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였다.

《조선식물도감》, 《조선약용식물지》, 《조선식물지》, 《산림총서》 등 국보적 가치가 있는 많은 도서들에 식물학연구와 산림자원증식을 기술인 그의 심혼이 숨배어있다.

은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는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는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는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과학기술을 비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시고

은혜로운 품속에 영생하는 식물학자

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그의 연구사업과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주제 59(1970)년 봄 어느날 그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감회에 젖으시여 자신께서는 처음부터 임록재동무와 식물원사업을 하였다고, 계속 도와주려니 하였으므로 일을 더 잘하라고 고무 격려하시였다.

언제인가 그가 앓고있을 때에는 몸소 병문안도 하시고 따뜻한 위로하시며 치료 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신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의 고독속에 꽃을 피우며 나라의 산림자원연구와 식물학발전에 기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해 여름 료양생활을 하고있는 그를 만나시고 몸이 허락치 않아

은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은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은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은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은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은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를 확립하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수확률들을 육성하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용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었다.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남새작물들의 작황도 대단하다.

농장에서 거둔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고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열풍이 거세차게 일고 공화국인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와 혁신의 불길들을 지퍼올릴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앞선 나라들에 굴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힘으로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묘술이고 힘이라고 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이루자고 해도,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어야 한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앞날의 믿음직한 과학기술인재로 자라날 일념안고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

본사기자 김 영 춘

조국통일의 길에 새겨진 송고한 헌신의 자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누누보다 가슴아파 하시며 조국통일 위업의 실현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셨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애국헌신의 천만리길을 이어나가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남녘 거레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며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열정을 바치신 아버지장군님이시었다. 열렬한 통일의 지로 심장을 끓이시고 송고한 민족애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길에 새겨진 송고한 헌신의 자취를 애국실력으로 우리 민족사에 빛나게 수놓아져 있다. 나라의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된 삼천리 강산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간절한 념원이며 한결 같은 지향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렬과 국토량탄은 우리 겨레 그 누구에게나 헤아려 수 없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민족분렬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끊어지지 않는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온 겨레를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분이 바로 아버지장군님

이시었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나는 하나의 조선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조선을 순간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돌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입니다. 조선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라고 교시하시었다. 조선은 하나! 새기면 새길수록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누누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며 온 겨레를 묶어세워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어려없는 뜻깊은 가르치심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펼쳐주시기 위해 쉬임없이 이어가신 그 나날들중에는 온 겨레의 다함없는 축하를 받으셔야 할 탄생일도 있었다. 주체64(1975)년 2월 16일, 이날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여느때와 다름없이 아침일찍 집무실에 나오시며 저녁까지 긴장한 시간을 보내시었다. 어스름이 깃든 저녁무렵 아버지장군님께서 찾으신 곳은 조국통일부문의 어느 한 단위였다. 그이께서는 삼가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동무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 자신께서는 오늘 밤을 동무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함께 의논해보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일군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위업이 간고하고 어렵지만 그것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못할 일은 없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밤늦게까지 지칠 줄 모르는 정력과 비상한 통찰력으로 조국통일과 관련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뜻깊은 2월명절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조국통일의 길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어찌 그밖에 한한 것일까. 그의 송고한 헌신의 자취자취는 고난의 행군시기 폭압과 체기법으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에도 새겨져 있다.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기어이 펼쳐놓으실 아버지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탁월한 정도와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사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병 눈물없이 대할수 없고 걱정없이 새길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있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력사의 준엄한 도전을 물리치며 즐기치게 전진할수 있었다. 사상이나 정견보다도 민족을 앞에 놓으시고 민족적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한대에서 손잡고 나가시려는 아버지장군님의 송고한 민족자주리념과 애국애족의 뜻에 매혹되어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보람찬 삶을 빛내이셨다. 한없이 송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아버지장군님을 우리 겨레가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시며 장군님의 통일유훈을 현실로 꽃피워가고 계신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은 의연 악랄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이 땅위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신기복

통일애국의 열정을 더듬어 (13) 해외 동포인사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공화국의 위력과 대외적 권위가 날로 높아지고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이 내외에 널리 알려지는 속에 해외동포들의 평양행은 잦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된 후 해외동포들속에서는 민족단합의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민족의 기상이 약동하는 공화국을 찾는 인사들이 늘었다. 그러한 환경속에서 1981년 6월말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총회》 회장이며 《한국인교회연합회》 고문이었던 김성락목사가 평양에 왔다. 목사가가에서 태어나 숭실중학교를 다닌 그는 미국인 선교사의 알선으로 미국류학을 한 후 평양에 돌아와서 교회사목을 하다가 1986년에 다시 미국으로 간 후로는 미국과 남조선에서 학계, 종교계에 관여하고있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연합장로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미국정부로부터 년봉을 타는 유익한 조선사람이었다. 그는 오래동안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과정에 반공사상에 몰입했으며 고향과 친척들이 있는 공화국을 방문하는 시각에도 북에 대한 의욕과 경계심이 적지 않게 지배하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고 그는 80고령에 인생전환의 새봄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목사의 부친의 반일운동경력과 목사의 미국에서의 애국활동을 평가하시고 공화국의 건국력사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승미사대주의의 해독성에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북남조선 전체 인민들이 자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고, 한쪽을 이어받으며 몇몇년동안 한강도우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를 외세가 결코 돌로 갈라놓지 못한다고, 우리는 북과 남이 연합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한다고 하시었다. 목사는 전적인 공감을 표

시하며 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돌아가서 미국국회의원들과 부대통령에게 전달하며 해외에 있는 동포인사들과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를 고무해주시면서 앞으로 자주 조국을 방문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목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신 자리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어서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었다. 그러서는 상상도 못하였던 일이었다. 후날 김성락목사는 미국에 돌아가 그리스도교신자들을 비롯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김일성주석의 도량이야말로 하늘의 품보다 몇배나 더 넓다고 말하였다. 그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비행장에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출발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북의 현실을 직접 보고 모든 오해를 깨끗이 풀었다고 하면서 《민족도 강산도 같고 김일성주석의 도량도 같고 이 놀라운 현실을 극도우에 가우어놓는 건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주석은 하늘이 내신 위인이십니다.》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자기의 인생전환을 괴력하는 진정어린 고백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후 평양을 다시 찾아가는 김성락목사부부를 크나큰 응접과 믿음으로 대해주시고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통일위업에 이바지한 그의 공적을 평가하시어 조국통일상수상자대렬에 세워주시었다. 《배달민족회》 회장이었던 최덕신선생도 평양행을 하면서 비로소 통일애국의 길에 자신을 바쳤다. 그가 평양에 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동포사회에 알려진것은 1981년 7월이었다. 평안북도 의주가 교향인 그는 8.15전에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당군대의 독립대대장(대령), 조선전쟁시기에는 남조선군 사단장, 군단장, 정전담당 《국군》대표, 전후에는 군단장, 외부장관, 서부도이탈란드

사, 1970년대초 북남대화시기에는 《반공련맹》 리사장 등 반공일선에서 물러나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1976년 《유신정권》과 결별한 후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해외동포들의 공화국복반문문호를 타고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평양시교외에 안치된 선천의 묘소를 찾은 최덕신선생은 민족주의자로서 곡절 많은 인생길을 걸은 자기 부친에게 각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사후에는 애국지사의 고귀한 영에까지 안겨주시길 김일성주석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그는 재북인사들이었던 장인 류동욱과 아내홍, 김규식의 묘소들도 훌륭히 꾸러져 있는것을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늦게나마 통일애국의 올바른 길을 찾아 평양을 방문한 그를 품소 만나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의산 최동우선생에 대하여 뜨겁게 회억하시고 민족애에 머리를 들수 없고 선진을 위해 온갖 열정을 다 부어주신 주석님을 대할 면목이 없다고 말씀을 올리는 그에게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이고 지금에 가슴이 꽂혀야 통일이나 하는 기로에 선 이때에 우리

와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하여 한류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큰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었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찬도 마련해주시고 우리로 두 힘을 합쳐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남부림지 않게 살아보자고 하시면서 다음번에 올 때에는 부인과 함께 오라고 당부하시었다. 참으로 최덕신선생에게 베푸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은 반공으로 얼룩졌던 곡절 많은 그의 운명애 원히 종지부를 찍고 새봄을 안겨준 재생의 빛날이었다. 하기에 1986년 9월 공화국에 영주권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심회를 표적하였다. 《김일성주석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에게 참다운 복음을 주는 민족중심, 민족위주의 철리와 바탕을 둔 위대한 정치경륜과 뛰어난 품격, 비범한 선견지명과 해박한 지식, 넓은 도량과 인자한 덕망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성인중의 성인입니다. 한번만 만나보시면 먼 과거에 품었던 소망과 오늘과 매일의 념원을 다 헤아려보시고 일순에 가슴이 꽂히고 눈앞이 환하게 앞길을 명시해주시

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일성주석은 참으로 저와 같이 반공을 하던 사람까지도 타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일원으로 꼭같이 포용해주시는 자애로운분이십니다.》 아버지수령님의 이런 사랑과 은정속에서 그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공화국에 영주하여 천도교중앙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노동위원회 회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불지의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곡절을 겪어온 《배달민보》 발행인이며 국제레전드연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의 삶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삶으로 되게 해주시고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빛내여주시었다. 재능있고 명망있는 음악가 유이상선생도 그 품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을 걸으며 값있는 삶을 누릴수 있었다. 이밖에 남조선의 이천 유엔대사였던 림창영과 차상달, 선우학원, 배동호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을 한몸에 받아안고 북과 해외의 현대실현과 민족자주통일의 행성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며 자기들의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본사기자 최광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재도이탈란드동포들(1987년)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인간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고향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이런 무서운 질책이 밤에도 날아오고 낮에도 날아오고 벽에서도 날아오고 땅에서도 날아오른다.》 -아버지가 쓴 글중에서-

나의 어머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34년간



김상훈선생의 안해

을 함께 사셨다. 어머니의 고향은 남쪽땅에 있다. 어머니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라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북에 들어와서 조소출판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후퇴의 혼잡속에 큰딸만을 데리고 온 어머니는 일생동안 남녘에 두고는 막내딸에게 최사위하였다. 그때 막내딸 하금은 어느 친척네 집에 가서 없었다고 한다. 시간도 없고 또 인차 오겠지 하고 떠난 걸음이 영리별이 되었다. 이런 어머니가 아버지와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함께 살기로 언약을 맺고 림종까지

지켜드렸다. 어머니의 딸만 하던누나는 내가 장가든 퍼 후까지 아버지가 데리고 온 딸인줄 알았다. 그만큼 누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지금은 신의주에서 손자, 손녀들을 한구름 거느린 할머니가 되어 잘한다. 젊었을 때 매형은 화가였고 누나는 의사였다. 어머니는 쌍둥이를 포함해서 여섯남매를 낳았다. 그래서 환갑이 지난 어머니도 이 일에 나섰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문도 알아야지, 일본말도 알아야지, 거기에 당시만 쓰던 우리 말표기나 묘사의 뜻도 알아야 했다. 게다가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 작품들이 어디 정연하게 보관되어있는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근 60여권이요. 그때도 어머니는 《현대조선문학선집》의 대부분을 수집, 편찬, 정리하여 출판하였다. 《현대조선문학선집》 해방전편까지를 끝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아버지묘소에 어머니를 함께 묻어줄래?》 착하고 또 착하지만 하신 우리 어머니이다. 아버지에게 물론이고 너무 착해서 아들딸 여섯을 낳아 키우면서도 자식들에게 육한번 못해본 어머니이다. 자식이라고는 단 들뿐인 아들과 딸에게도 언제나 드살군인 내 처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우리 자식들이 좋은 아버이를

수기 통일을 그리며 북대와 함께 (4)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고 해방전의 천일작가라고 영영 매장되었던 작가의 작품까지 모두 발굴하여 수집 편찬할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그래서 환갑이 지난 어머니도 이 일에 나섰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문도 알아야지, 일본말도 알아야지, 거기에 당시만 쓰던 우리 말표기나 묘사의 뜻도 알아야 했다. 게다가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 작품들이 어디 정연하게 보관되어있는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근 60여권이요. 그때도 어머니는 《현대조선문학선집》의 대부분을 수집, 편찬, 정리하여 출판하였다. 《현대조선문학선집》 해방전편까지를 끝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아버지묘소에 어머니를 함께 묻어줄래?》 착하고 또 착하지만 하신 우리 어머니이다. 아버지에게 물론이고 너무 착해서 아들딸 여섯을 낳아 키우면서도 자식들에게 육한번 못해본 어머니이다. 자식이라고는 단 들뿐인 아들과 딸에게도 언제나 드살군인 내 처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우리 자식들이 좋은 아버이를

라! 이런 무서운 질책이 밤에도 날아오고 낮에도 날아오고 벽에서도 날아오고 천정에서도 날아오고 땅에서도 날아오른다.》

아버지는 북으로 들어올 때 작은 통을 하나 가지고왔었다. 그속에는 두리운 모직 천으로 정성스레 짠 까만 모직과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우리 나라 도별지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작은 지도수첩이 여백까지 모두 찢려있었다. 《언걸을 가는 사람엔 눈사람까지 무겁다.》는 말이 있었다. 누가 이렇게 알뜰하게 잘라주었을까? 자식들이? 아니면 그랜 그들도 모두 어렸다. 나는 뜻밖에도 그것을 내 처에게서 알았다. 아버지는 머느리를 무척 고와했다. 처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라지를 다하면서 아버지고 향에 있는 자식들도 다 말아안았다고 한다. 후퇴때도 다른 사람은 다 리해 못해도 그 녀인만은 아버지를 리해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서도 옷설도 여미지 못하고 그 크고도 맑은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아버지를 바래주던 녀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두가지 부락을 하였다. 하나는 통일이 되면 잘 자란 자식들을 데리고 상산 김씨 김상훈의 아들임을 소리치며 고향에 가보라는 부탁이고 다른 하나는 그 녀인을 꼭 찾아가서 만약 세상을 떠났으면 묘소에 아버지 묘로 삼가 제주를 부고 살이 있으면 큰절을 올리라는것이였다. 한평생을 그리다가 운명의 마지막순간에까지 잊지 못해 다시 불러낸 녀인, 이런 사랑도 있을가! 그런데 진짜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여름, 일본에서 총련계의 한 기업가가 왔는데 품지수려한 보통방에 있는 한 호실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기업가는 몹시 난처해하다가 남조선에 아버지의 전 부인이 있는것을 아는가고 물었다. 나는 안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안도의 기색으로 그 녀인이 아버지소식을 물어왔다고, 형님, 누나다섯을 다 말아안고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고있다고 전해주었다. 너무 억이 막히면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한다. 대신 심장이 리

어머니의 고향과 잇닿은 강씨어머니의 다식한 정도 것들이있을것만 같은 작은 지도책은 지금도 내가 정히 보관하고있다. 김종실(김상훈의 딸이들)



작은 지도수첩

광주의 의로운 학생들이 오늘을 본다면

남조선에서 광주학생사건 90년(1929년 11월 3일)을 맞으며 빈일, 반보수투쟁의 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한국대 학생진보연합》은 지난 10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빈일, 반《자한당》초보집회에서 《군국주의부활 일본반대!》, 《토착왜구 《자한당》 해체!》, 《황교안구속!》 등의 구호를 웨치며 11월 2일 광주에 집결할것을 호소하였다.

일본군정시대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개혁, 강제동원피해자대책회의를 비롯한 빈일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광주시민행동》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 남조선의 교육계에서도 이날을 맞으며 다양한 빈일집회와 함께 《자한당》의 매국배족행위와 반《정부》관동을 규탄하는 초불문화제 등을 크게 조직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침략의 과거를 되풀이하려는 일본의 망동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친일매국노들의 범죄적인 행동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남녘민심을 반영한 의로운 투쟁들이다.

다 아는것처럼 일본은 침략의 과거를 반성하고 사회학 대진 군국주의부활과 재침략등에 혈안이 되어 날뛰

고있다.

최근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홍패지에 독도를 빼앗아 일본령토처럼 표기해놓은 지도를 올려놓고 올림픽소개출판물들에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한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지어 퍼본은 전범기를 올림픽경기마당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망동까지 부린 일본이다.

경제적응피해자배상문제를 놓고 《신뢰관계훼손》, 《국제법위반》이니 하고 생떼를 쓰며 남조선에 대해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의 칼을 마구 휘둘러대고있는것도 일본이 얼마나 파렴치한 나라인가를 잘 말해주는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결코 변하지 않은것이 일본의 침략자본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자한당》을 비롯한 친일매국노의 후예들은 일본에 이러한 침략행위를 비호두둔해 나섬으로써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저들의 추악한 제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왜나라쪽발이들에게 송두리채 섬겨버리는것도 서슴치 않는 특등반역집단이 바로 《자한당》 패거리들이다.

《자한당》의 원조인 친일《유신》세력들이 반세기전

매국적인 《한일협정》으로 일제의 치명적인 식민지통치법칙을 덮어주었다면 그 후예들이던 《자한당》 패거리들은 몇푼의 돈으로 《한일위안부합의》에 맞도장을 찍고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어 일본에 제침의 다리를 놓아준 친화에 돌도 없는 매국역적부리들이다.

《자한당》 대표라고 하는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수치에 대한 대응문제와 관련하여 《쇄국정책》이라고 비난질하였는가 하면 원내대표를 비롯한 역적당패거리들도 《반일감정조장》, 《자제》 등 참을수 없는 친일말발들을 늘어놓았다.

《자한당》 패거리가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친일을 할 때》이라고 공공연히 제친 사실이 나 《자한당》 소속 의원이 《국회》에 낯짝을 들이밀고 《우리 일본정부》라는 상상못할 망언까지 내뱉은것도 오백점의 일이 아니다.

《자한당》 패거리들의 망동은 왜나라쪽속들의 오만무례한 행태를 저주규탄하며 빈일합전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친추만대를 두

고 아물수 없는 민족의 상처에 두번다시 소금을 뿌리는 친화의 대역적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친추에 용납 못할 과거죄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군사적제침의 칼을 휘두르고 경제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며 미친듯이 날뛰고있는것은 바로 《자한당》과 같은 남조선의 보수역적부리들이 십나라쪽속들에게 아부굴종하며 세인을 경악시키는 매국매국행위를 서슴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피와땀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군들 이에 분노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90년전 우리 민족의 빈일독립의지를 과시했던 광주학생들의 피를 다시 한번 남조선의 친일매국세력의 망동들을 본다면 무엇이이라고 하였는가. 민족을 망하게 하는 친일매국노들을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한다고 웨칠것이다.

오늘도 울려오는 광주학생들의 피라는 절규는 일본의 침략범죄를 친백배로 결산하고야말 우리 민족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

고있다.

반역당패거리들이 인민들의 정의로운 빈일투쟁을 가로막고 잔멸을 부추기려고 발악할수록 그것은 역사의 무덤속에 매장될 종말의 시각만 재촉할뿐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최근 남조선에서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를 완강하게 반대해나오고있는것이 각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공수처》는 《독재수사기관》, 《공포수사청》, 《장기집권사법부》이며 《공수처설치법》은 《장기집권을 위한 문재인정권의 독재법》, 《제2의 게스타포를 만들어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독설을 쏟아내고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설치법》을 강행처리하면 《국회》이 코드와 장외집회, 《헌법재판소》 제소, 2020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저지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시키겠다고 하고있다.

이런 서서히 지난 10월 2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정부》집회를 벌려놓고 《공수처법》을 만들어 공산주의를 집행하려고 한다, 《공수처》는 독재통치

기구이다, 《독재정권》을 만들려는 당국자를 끌어내리라, 《공수처법》을 폐지하라고 광기를 부렸다.

최많은사람만이 부릴수 있는 일종의 히스테리라고 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공수처》가 행정부 판관과 《국회》의원, 검사, 경찰, 판사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진행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헌《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하고있다.

헌 《정부》와 집권여당은 《공수처》설치로 남조선에서 반《정부》집회를 벌려놓고 《공수처법》을 만들어 공산주의를 집행하려고 한다, 《공수처》는 독재통치

지하는 여론이 반대어론보다 더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공수처》설치를 결사반대하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 각계층의 보수적폐청산투쟁을 가로막고 추악한

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공수처》의 설치로 불법부패와 부정부패의 왕조인 저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는 민심의 요구인 적폐청산이 더 강도높게 추진되어 보수세력이 지리멸렬될수 있다는 구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공수처설치법》을 《제2의 게스타포를 만들어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허튼말을 붙여대면서 괴를 물고 반대해나오고있는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저들의 추악한 망동을 《국민의 명령》, 《파괴독재정치》로 미화분식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초불문화제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과거의 몸서리치는 파쇼독재체제를 부활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층의 더 큰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부산시민단체 일제강제징용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집중행동 진입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부산저해 하나가 10월 23일 부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과거죄악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일본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이 판결로만 남아서 안

된다고 말하였다.

판결이 실제로 리행되고 더 나아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모든 피해자가 사과와 배상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회까지 않고있는 아베정권을 향해 국민이 일제죄악을 기억하고있으며 끝까지 사회,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있다는

것을 보여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1만명을 목표로 내세우고 직장, 학교, 마을 등 부산의 곳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일제강제징용범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생명운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말마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자기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그 무슨 《국민중심평화론》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마지막보편 황교안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라는것은 이미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고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의 동족대결, 사대매국, 반통일정책과 결코 다름아니다.

황교안이 자기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국민중심평화론》이라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남관계를 전쟁위협이 최극단으로 치달던 과거에도 되풀이해왔었다는 반통일론, 대결론이며 평화파괴론이고 전쟁론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이 내는 《국민중심평화론》의 내용 그자체가 이를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

황교안은 《국민중심평화론》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 미국의 동맹강화와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해야 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책동에 광범함으로써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위협을 조성하였다.

반문집권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전쟁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여

사적대관개로 돌려놓으려는 중심의 발로이다.

황교안이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북주적론》의 부활을 꾀하는 등 그가 내는 《민평론》의 내용들은 어스것이나 할것없이 극단한 동족대결과 전쟁을

산생시키는 무모한 《전쟁론》이다.

이로써 황교안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변영, 통일을 반대하고 동족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대결광으로서의 자기의 중심을 더욱 날달이 드러내놓았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과 언론들은 황교안의 《민평론》에 대해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대안》, 《조선반도의 평화를 깨는 전쟁론》이라고 비난조소하

고있다.

대세와 민심에 도전하여 동족대결을 선동하고 전쟁열을 고취하는 이런 미치광이들이 재집권한다면 북남관계의 파국과 조선반도정세악화는 불보듯 명백하다.

황교안을 비롯한 《자한당》 패들이 허황한 《민부론》에 이어 기만적인 《민평론》라령을 또다시 늘어놓으면서 저들을 《안보정당》, 《평화수호정당》으로 둔갑해나섬으로써 많은 지지표를 긁어모아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꾀하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는 망상이다.

조선반도평화에 역행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한당》의 황교안과 같은 반통일, 전쟁세력에게 차려질것은 민심의 지지가 아니라 단호한 심판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에서 《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직접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 각계가 격분하고 있다.

10월 21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시 기무사가 초보집회집회를 위해 작성했던 대규모의 남조선군병력 투입계획인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하였다. 거기에는 남조선대법원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기 이를전부터 계엄령을 시행하며 야당인원들을 비롯하여 계엄에 반대하는 정계인사들을 검거후 사법처리하는 방안, 계엄군배치장소, 계엄군부대별기동로, 계엄방범은 물론 계엄선포후 언론통제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주목을 끄는것은 박근혜 탄핵당시 황교안이 3차례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벌려놓고 계엄령시행과 관련한 모의를 진행했다는것이다.

사실 이 쿠데타음모계획이 지난해 처음으로 폭로되었을 때에는 황교안의 가담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이번엔 나타난 증거자료들은 황교안이 남조선의 초불민심을 총칼로 짓누르기 위해 얼마나 무서운 흉계를 꾸미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 쿠데타각본은 수백대의 탱크와 장갑차, 수많은 병력을 내몰아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할것을 노린 끔찍한 살륙작전계획으로서 친추에 용서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쿠데타계획을모가 폭로되자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섬세하다》, 《5.16과 12.12를 련상케 한다》, 《1980년 광주가 또다시 재현될뻔 했다》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주도자들을 찾아내어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당시 쿠데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은 민심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대통령》 권한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장이라는 감투를 쓰고있던 황교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었다.

원래 황교안으로 말하면 《유신》독재의 하수인이 되어 잔뼈가 굵은 극악한 파쇼쌍이다.

《공안검사》 시절 사회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대의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친보적인 민주인사들, 통일에국인사들

《보안법》에 걸려 탄압했는가 하면 2009년에 출판한 《집회시위법해설》이라는데서는 4월인민봉기를 《혼란》으로, 박정희군사정변을 총칼로 짓누르기 위해 얼마나 무서운 흉계를 꾸미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역도년이 《국회》에서 탄핵된 후에는 《대통령》 권한해제로 있으면서 《세월》호참사당일 박근혜의 7시간행적이 담긴 문서들을 비롯한 수만건의 청와대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유신공주》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발악하였다.

이런 인간추물이나 수백만 초불시민을 탄압하살하려는 쿠데타모의도 서슴없이 주도한것이다.

그런데 저지른 대역죄로 교수대에 올라서야 하는 황교안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명천지에 기생오래비같은 낯짝을 쳐들고 《대권》을 꿈꾸며 권력찬탈놀음을 미쳐들어가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이름그대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박근혜의 앞잡이로, 역도년이 가려워하는 부위를 시원히 긁어주는 환관으로 손가락질받던 황교안의 더러운 꼬리가 잡힌셈이다.

반인륜적, 반민주적대범죄인 쿠데타음모의 직접적주모자로서의 황교안의 추악한 정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날것이다.

장명철

《시》

너의 앞날은 뻔하다

김영일

— 《한일정보보호협정》 정상화 골수에 사대가 짙 들어찬 망발도 꺼리낌없이 《국회》관동사건의 범죄자를 모아놓고 요사한 웃음으로 선사하는 《공천가산법》 역시 그 행태도 추녀다운 행동이구나

언제부터 입에 달고 지껄이던 《9.19군사합의폐기》, 《파괴독재타도》 그것은 네 몸값 울리는 치레거리라도 되느냐 오늘도 악을 써대며 침방울 땀고있으니 악녀의 들레라면 너만큼 서러울이 또 있겠나

—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것은 《한미동맹》

분수도 창피도 다 꿰버린 너의 추태

남조선인테넷신문 《자유시보》에 의하면 민중당 부산시당 성원들이 10월 21일 부산에 있는 미국령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인상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미국이 철저하게 저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반도에 주둔하고있다고 까발렸다.

더 이상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과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로 인해 강탈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 회견문이 랑독되었다.

회견문은 미국이 전략자산들의 전개비용과 《싸드》 운영비용 등을 강박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당한 남조선주둔 미

회견문은 미국이 전략자산들의 전개비용과 《싸드》 운영비용 등을 강박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당한 남조선주둔 미

회견문은 미국이 전략자산들의 전개비용과 《싸드》 운영비용 등을 강박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당한 남조선주둔 미

회견문은 미국이 전략자산들의 전개비용과 《싸드》 운영비용 등을 강박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당한 남조선주둔 미

회견문은 미국이 전략자산들의 전개비용과 《싸드》 운영비용 등을 강박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당한 남조선주둔 미



국가상징물을 새긴 T셔츠들과 모자들

최근 공화국의 상업봉사장에서 판매되고있는 국기와 국조 참매를 새긴 T셔츠들과 모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푸른색바탕의 조선지도위에 공화국기를 새겨넣은 T셔츠들과 모자이크로 형성된 조선지도와 공화국기를 새겨넣은 T셔츠들은 청소년 학생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옷의 전반을 공화국기의 색상으로 처리한 T셔츠들과 옷의 기본부분을 흰색 또는 푸른색바탕으로 처리하고 팔소매에 국기를 형성한 T셔츠들, 가슴부분에 국조 참매를 새기거나 공화국기를 새겨넣은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T셔츠들도 관광과 동산을 즐기는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평양제1백화점 판매원 신정실의 말에 의하면 이곳 상점에서만도 세운것형태, 깃없는 형태, 모자달린 형태 등 20여종에 달하는 남녀T셔츠들을 판매하고있으며 푸른색과 푸른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을 바탕으로 람홍색공화국기와 참매가 형성된 10여종의 모자들도 체육애호가들이 많이 찾고있다고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리대원은 이전에는 국가상징물이 새겨진 옷을 체육선수들만이 입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는데 이번에 국가가 새겨진 T셔츠를 입어보니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체육인이 된 심정이다.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넘친다.

앞으로 내 나라를 빛내이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평양폭산공장 노동자 김수연은 얼마전 평양역전백화점에서 국가상징물이 새겨진 T셔츠를 구입하여 실컷에 벌여지는 탁구경기때 입었다. 이것을 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특색있고 멋있으며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중학생인 아들이 너무 조르기에 국기가 새겨져있는 T셔츠와 모자를 사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화국 각지에서 국가상징물을 새긴 T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사람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모습은 거리와 일터의 새로운 풍경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모량공원의 가을



11월의 절기에는 립동과 소설이 있다.

립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1월 7일이나 8일이다.

립동을 전후로 하여 배추와 무우를 수확하여 김치를 담그는데 이런데로부터 11월을 김장달이라고도 불려왔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김치는 절반 량식》이라고 하면서 김치담그는 일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날씨가 추운 북쪽지대에서는 립동전에 김장을 끝냈으며 기우가 온화한 남쪽지방에서는 립동 후에 김치를 담그었다.

김치는 여러 가정의 주부들이 모여 한집씩 돌아가면서 담그어주었는데 새로 담근 김치를 이웃에게 먼저 맛보이는것을 도덕으로 여기었다고 한다.

립동시기를 전후하여 다음 해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데 필요한 메주를 쑤는것도 우

운 북쪽지대에서는 립동전에 김장을 끝냈으며 기우가 온화한 남쪽지방에서는 립동 후에 김치를 담그었다.

김치는 여러 가정의 주부들이 모여 한집씩 돌아가면서 담그어주었는데 새로 담근 김치를 이웃에게 먼저 맛보이는것을 도덕으로 여기었다고 한다.

립동시기를 전후하여 다음 해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데 필요한 메주를 쑤는것도 우

운 북쪽지대에서는 립동전에 김장을 끝냈으며 기우가 온화한 남쪽지방에서는 립동 후에 김치를 담그었다.

김치는 여러 가정의 주부들이 모여 한집씩 돌아가면서 담그어주었는데 새로 담근 김치를 이웃에게 먼저 맛보이는것을 도덕으로 여기었다고 한다.

립동시기를 전후하여 다음 해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데 필요한 메주를 쑤는것도 우

하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1월 22일이나 23일에 든다.

소설시기에 여러가지 알곡작물들에 대한 탈곡을 끝내고 뒤주나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방아도 쪼갰다.

립동과 소설때에 동해바다 북부지역에서는 도루메기와 명태잡이가 활발히 진행되곤 하였다.

잡은 도루메기와 명태는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워 보관하

있는데 특히 마른명태는 함경도지방의 특산으로 널리 전해졌으며 남쪽지방에서는 북쪽사람들이 잡는 물고기라는 뜻에서 북어라고도 하였다.

립동, 소설시기 우리 겨레가 즐겨해먹던 한 대표적인 민족음식물로서는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도루메기식혜, 명태운탕 등을 들 수 있다.

올해에 립동은 11월 8일이며 소설은 11월 22일이다.

본사기자

11월의 절기와 민속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여러가지 제법들이 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손을 맞잡거나 불을 비비는 제법,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비비면서 서로 반가움을 표시하는 제법, 무릎을 맞대거나 발을 만지면서 최대의례를 표시하는 제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가야운에서도 조선절은 고상하고 단정할뿐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깨끗하며 아름답고 절제바른 인사법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절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허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숙여 존경과 축하, 안경을 제절로써

표시하게 하였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인사 제법을 먼 옛날부터 지켜왔다.

고대에 벌써 이웃나라들에 조선을 가리켜 덕망이 높고 절제한 사람, 성인이라 하는 뜻으로 《군자국》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은 동방례의지국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었다.

조선절에는 때와 장소, 환경과 조건, 대상에 따라 옷몸을 깊숙이 숙이는 형식, 절반정도 숙이는 형식, 고

개만을 숙이는 형식이 있다.

조선절은 옷몸의 굽힘 정도에 따라 옷사람과 아래사람에 대한 정중성을 나타낸다.

다시말하여 몸을 깊숙이 숙이는것은 인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최대의 정중성을 표시하는것이고 절반정도 몸을 숙이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사의 표시로 되며 고개만 숙이는것은 인사에 대한 답례 또는 가까운 친구들사이의 절제로 된다.

조선절은 옷사람과 아래사람, 대상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절제를 충분히 표시할수 있는 단정하면서도 고상한 인사법이다.

본사기자

한경북도 어랑군 화룡리는 해방직후 화곡동과 리룡동의 이름들중에서 《화》자와 《룡》자를 따서 지었다. 화곡동은 꽃이 많이 피는 골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옛날 한성에서 구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골골부도 하고 도를 닦아서 세상만사에 밝았다고 한다.

비록 하마다벼슬이나 지내었지만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최 아진 최 랑반들의 수모를 많이 받았다.

어느날 한성에서 구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골골부도 하고 도를 닦아서 세상만사에 밝았다고 한다.

비록 하마다벼슬이나 지내었지만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최 아진 최 랑반들의 수모를 많이 받았다.

어느날 한성에서 구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골골부도 하고 도를 닦아서 세상만사에 밝았다고 한다.

비록 하마다벼슬이나 지내었지만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최 아진 최 랑반들의 수모를 많이 받았다.

고마운 마을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결심한 구생은 자기 집 안방을 글방으로 꾸렸다.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글과 무술을 가르쳐주었고 저녁에는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어느날 마을의 한 소녀가 한송이의 고운 꽃을 가지고 와서 무슨 꽃인가고, 우리 마을엔 왜 이런 고운 꽃들이 피지 않는가고 묻는데서 큰 충격을 받은 구생은 다음날부터 아이들과 함께 진귀한 꽃들을 가져다 심어가꾸려서 풀안을 꾸려나갔다.

이때부터 마을은 꽃이 피고 벌이 날아드는 아름다움고장으로 되었으며 이곳에서 공부하던 아이들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나옴은 마을사람들속에서 존경을 받으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한다.

본사기자

지명관 그 유래

화곡동

한경북도 어랑군 화룡리는 해방직후 화곡동과 리룡동의 이름들중에서 《화》자와 《룡》자를 따서 지었다. 화곡동은 꽃이 많이 피는 골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옛날 한성에서 구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골골부도 하고 도를 닦아서 세상만사에 밝았다고 한다.

비록 하마다벼슬이나 지내었지만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최 아진 최 랑반들의 수모를 많이 받았다.

어느날 한성에서 구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골골부도 하고 도를 닦아서 세상만사에 밝았다고 한다.

비록 하마다벼슬이나 지내었지만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최 아진 최 랑반들의 수모를 많이 받았다.

어느날 한성에서 구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골골부도 하고 도를 닦아서 세상만사에 밝았다고 한다.

비록 하마다벼슬이나 지내었지만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최 아진 최 랑반들의 수모를 많이 받았다.

사화

릉 참 봉 (3)

글 리원주, 그림 리성일

그러나 고영근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금 내감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마음을 놓으시오. 허나 나의 말을 들어줘야겠소. 거두절미하고 두 대강이 사이토총독을 만나 태황제폐하의 통침에 비석을 세우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그러면 나는 조용히 물러가겠소.》

둘은 어이가 없는듯 서로 얼굴을 바라볼뿐 대답이 없었다. 고영근의 말이 차차 거칠어졌다.

《왜국 귀족작위까지 받고 그럴 이면에도 세끼지 않으면 어디다 쓰겠소. 송나라를 금나라에 팔아먹은 진회도 무색할 지경이라는 세상의 지탄에 가슴이 떨리지 않소. 그 대죄를 만분의 일이라도 씻을 기회는 이번이요.》

얼굴이 흉당무우처럼 된 윤덕영이 갑자기 소리를 썩질었다.

《밤에 누가 없느냐. 이 미친놈을 끌어내라!》

고영근이 마루바닥이 부서지게 발을 땅 구르고 소리쳤다.

《윤덕영 이놈, 나라를 팔아먹은 죄만 해도 통치처참할 일로되 태황제폐하의 부래도의를 당해 가짜분참봉직지를 마구 팔아 더러운 배를 채운 네놈의 죄는 죽음으로도 씻지 못하리라. 너

같은 놈들을 일찌기 없애치우지 못하게 한이로다.》

그리고 그는 옆에 있던 결상을 버쩍 쳐들었다. 그때 이미 방안에 들어서있던 리왕직순사들이 일른 그의 두팔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힘이 장사였다. 그는 두 순사를 뿌리치며 결상을 윤덕영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둘은 까투리처럼 책상밑에 머리를 틀어박고 결상엔 벽에 부딪쳐 박살이 났다.

고영근은 달려드는 순사들에게 호령을 했다.

《이놈들, 무엄하게 어디다 손을 대느냐. 가자는데로 갈려나 떠나오너라.》

그리고 그는 유유히 방에서 나왔다.

경무부에 불들려간 고영근은 아차하여 한조관앞에서도 도도하게 한마디를 할뿐이었다.

《총독을 만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며칠이 지나도 그 식이 장식이고 그렇다고 무슨 큰 죄를 씌울거리도 없어 경무관관리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여 한조관앞에 내놓고말았다. 그런데는 리왕가의 감정을 크게 자극할것을 우려한 관도사무원의 주장도 일장하게 작용했을까이다.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모르는 고영근

에 대한 경찰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고영근이 비척거리며 금곡릉에 돌아오니 벌써 양주경이 찰서에서 순사들이 세명이나 나와서 통침을 지켜서있었다.

《왜놈들이 통침까지 침범하다니,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그의 가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왜놈들이 물러가기 전에 내 이 통침에서 한발자국도 내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그는 통침에 부복한채 죽은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찬이슬 콧머리에 맺고 술술을 흘리는 꽃샘바람이 오장륙부에까지 스며들건만 그는 그런듯이 움직이지 않사. 하인이 놀라서 음식을 날라왔건만 그는 식음도 전혀했다.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들이 가고 사흘이 지났다. 나흘째에는 순사들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늙은이가 더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여겼던 모양이다.

《흥, 그러면 그렇겠지. 양생배기같은 왜놈들이 버티면 얼마나 버틸테냐!》 하고 그는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도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일어 서려 하였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미 기운이 쇠잔해진데다가 사지가

간성하고 제절바른 인사 조선절

마르나우처럼 굳어졌던것이

다. 그의 기척을 알아본 하인이 얼른 달려와서 가라부라 말이 없이 주인을 둘러업고 쳐소로 내려왔다.

미음을 마시고 혼곤한 잠들었던 고영근이 한성경이나 지나 확대다 놀라 눈을 떴다. (아니, 이럴 때가 아니다. 죽어도 일을 치르고 죽어야지.) 하고 생각한 그는 하인을 불러 음에 달려가서

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그는 어디서 그런 힘이 갑자기 솟아나는지 잠자리를 차고 일어나 석수들을 데리고 비각으로 올라갔다. 피기 한점 없이 앙상한 뼈우에 고뇌의 흔적인듯 주름살만이 깊이 새겨진 그의 얼굴은 이마 산 사람의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여전히 웅글게 울리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봉분을 세운지 4년이 넘도록 임금님의 통침에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한것은 우리 백성의 치욕이 아니겠나. 이제 자네들이 2천만을 대신해서 그 치욕을 씻을 날이 온 결세. 이 비석은 비석에 치는게 아니라 나라를 되찾자는 이 나라 백성들의 뜻을 만천하에 떨치는것으로 되네. 자, 왜놈들이 보기만 해도 사시나무처럼 떨도록, 이 나라 백성들의 넋이 영원히 깃들도록 천년 드느라

않게 비석을 세우세! 그러면 이 늙은것도 눈을 감고 죽겠네.》

석수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목욕히 비각으로 들어갔다. 이미 어두워 초불을 켜니 비각 한복판 땅우에 빈대들만이 놓여있고 비석은 한쪽구석에 자빠뜨려져있었다. 그러니 이미 4년이 지났으니 흠과 먼지가 쌓여 그 자태는 알아보기도 힘들게 되었다. 이 폐허같은 정경은 석수들을 더욱 흥분시켰다.

《왜놈의 섬소랑개군성이란 바로 이렇구나.》 하고 한 석수가 비석을 바라보며 분노를 터뜨렸다.

《남의 나라 궁전에 불법 침입해서 국모를 칼로 찔러 죽인 레는 고금동서 역사에서 왜놈밖에는 없는데.》 하고 또 하나가 말을 받는다.

《그 강도놈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나라를 먹었다. 자, 정 하나에 왜놈의 대가리 하나씩 까는 심정으로 돌이나 쪼으세.》 하고 늙스그레한 석수가 비석을 세울 자리에 정을 박으며 말한다.

좁은 비각에서 네사람이 돌을 쫓는 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한 숲의 정적을 깨뜨리는 정소리는 사람들의 불안을 자아냈다.

《밤의 정소리는 멀리까지 들리는데 주재소의 순사들이 이 그걸 듣고 달려오기라도 하면 야단인데.》 하고 누군지 마음속에 쌓여가던 근심을 입으로 내놓았다.

모두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겁에 질려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옛이야기로 본 속담과 설류

소금이 실 때까지 해보자

월리 없는 소금이 실 때까지 해서 끝장을 보자는 뜻으로 《어떠한 일을 끝까지 날 때까지 해보자는 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좌 찬성벼슬을 지낸 리상의 아이적에 행동이 심히 경솔하여 앓아서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말할적마다 망발이 많았다. 부모는 그를 걱정하여 자주 책망도 하였다.

리상의자신도 그 경솔한 행동을 고치려고 스스로 고심한 끝에 몸은 작은 방울 하나를 차고 방울소리가 들릴적마다 정신을 가다듬어 자기를 경계하며 행동을 단속하였다.

나가고 들어올 때, 앉았거나 누웠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방울을 놓지 않았다.

끝장을 보려는 완강한 노력의 결과 그의 결함이 오늘 덜리고 매일 덜러 매일매일 덜리더니 중년후에 가서는 전혀 단 사람이 되어 오히려 너무 관대하고 완만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것은 꼭 라고난 천성과 같아서 노력으로 이루어진 리는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통 빨 래

정수동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니 밤이 이슬해졌다.

당시는 밤이면 순라군들이 들고 그들에게 잡히는 날이면 도적으로 몰려 잡혀가는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순라군들이 마침 정수동의 앞에서 걸어왔다.

어디에 숨을데도 없어 정수동은 굶기야 남의 집 담장

우에 올라가 넘적 없드렸다. 순라군이 다가와서 《넌 누구야?》 하고 묻자 정수동은 《예, 저는 빨래물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순라군이 《이놈, 누굴 놀리러드느냐? 빨래라니 웬 빨래가 그리하나?》 하고 호통치자 그는 《예, 갈아입을 옷이 없어 통채로 빨아 말리우고있는 중이요이다.》 하고 썩쩍대며 말하였다.